

인터뷰 갔다가 영정사진 찍고 온 인연



밝게 웃는 황필상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찍은 사진. 이 사진이 영정 사진에 쓰였다.

“구원장학재단 황필상씨 사진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2018년 12월30일 오전 중 받은 수십 통의 이메일 제목 중 하나다. 발제 보고가 바쁜 시간이라 열어보지 않았다. 기자의 편지함에 온갖 홍보, 항의, 보도자료가 매일 쏟아진다. 때문에 열어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메일이 훨씬 많다.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눈에 띄는 메일 제목. 황필상이 누구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메일을 열어봤다. 2017년 내가 쓴 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묻는 내용이었다.

‘활짝 웃고 계신 사진’, ‘가족으로

서 너무 귀한 사진’,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면서, 황씨의 사진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주 생생하게.

황필상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그의 이름은 몰라도 그가 겪은 일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다. 평생 모은 19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길고 긴 소송을 치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황 이사장은 1947년 서울 청계천 인근 판자촌에서 태어났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해 자수성가하자 ‘사람 농사’를 짓고 싶었다고 한다.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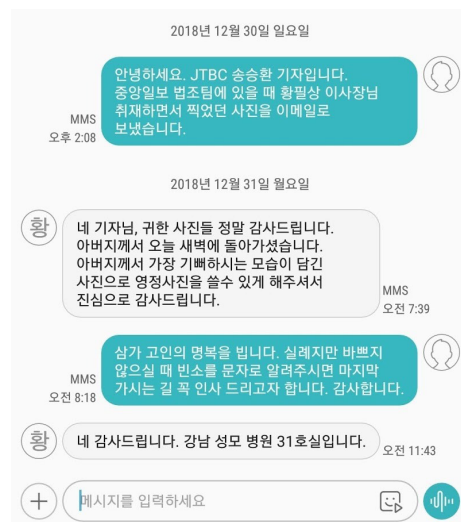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다. 수원교차로 주식 지분 90%(당시 평가액 180억원)와 현금 15억원이었다.

아주대 측이 직접 증여를 받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대학과 공동으로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세웠다. 2008년까지 6년 동안 학생 733명이 4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 140억원을 내라고 했다. 100억원의 증여세와 5년 동안 내지 않은 가산세 40억원을 합친 액수다.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한 것이 편법으로 상속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장학재단의 재산과 계좌가 압류됐다.

황 이사장은 이듬해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에서 이기자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듬해 2심 재판부는 “경제력을 가족 등에게 승계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내가 황 이사장을 만난 건 그로부터 6년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오던 날이었다. 2017년 4월20일 아침, 중앙일보 법조팀장이던 L선배는 나에게 과제를 내렸다. “황필상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적



황필상 이사장의 유족과 나는 문자 메시지.

군(다른 기자들)’을 따돌리고 따로 만나서 무조건 단독 인터뷰를 해라. 2면을 통째로 비워놓을 테니까. 놓치면 핑크 나는 거다.”

이날 오후, 대법원 법정에서 그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원심을 파기하고...” 8년 동안의 긴 소송에서 이기는 순간, 그의 입 꼬리가 가볍게 올라갔다가 곧 내려왔다. 담담한 얼굴이었다. 간신히 얻어낸 결과에 부정이라도 탈까 조심하는 것 같았다. 선고 뒤 기자 회견에서 질문이 쏟아질 때도 “더 이상 앞길이 안 보일 때 나에게 큰 힘이 돼 준 의인들”이라며 변호인단을 치켜세울 뿐이었다.

방송사 인터뷰까지 모두 마치고 ‘적군’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나도 철



2018년 12월31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걸린 황필상 이사장의 영정 사진. 기자가 인터뷰 때 찍은 사진이 사용됐다.

수하는 척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주차장으로 가는 그를 후다닥 쫓았다. 그가 향한 곳은 법원 안 흡연 구역.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뿔으며 비로소 활짝 그가 웃었다. 놓칠 수 없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찍었다.

“다행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너무 오래 걸렸어. 이번 일로 400살 도사가 된 것 같아.”

그가 비로소 속내를 털어놓았다. “처음엔 속 무지하게 많이 썩었어. 내가 왜 기부를 해서 범죄자로 몰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해서 후회를 많이 했어. 그 뒤

론 체념했지. 이 일에만 몰두하면 죽을까 봐. 내가 만학도로 돈도 없이 공부할 때 배운 노하우가 있지. 힘들수록 힘을 빼고 버티는 거야.”

그는 아직도 사람 농사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많이 길러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씨를 잘 뿌리고 있었는데...” 하면서 많이 아쉬워했다. 차를 타고 떠나기 전 15분간 나는 대화에서 그의 진심이 전달됐다. “이제 500살 먹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열심히 키워보리다.”

그가 떠나자 법조팀장 L선배에게 전화했다. “따로 만나서 확실하게 들었어요. 까먹기 전에 빨리 쓸 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도 안 했는데 L선배도 내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러라 했다. 검찰청 기사실에서 기사를 써서 보냈다. 제목은 <“사람 농사가 범죄 될 뻔해 ... 제2 잡스 다시 키워보리다”>.

황 이사장의 가족들이 찾는 건 바로 이날 찍은 사진이었다.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다.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영정 사진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근을 하려고 샤워를 하다가 왈각 울음이 났다. ‘500살까지’ 사람농사를 짓겠다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속이 상했다. 하루에 2만 보씩 걸을 정도로 건강했던 고인은 소송을 치르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한다. 고인은 아주대의료원에 자신의 주검을 기증하고 떠났다. 마지막 나눔이었다.

2017년 12월 국회에선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걱정 없이 주식을 사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황필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정 투쟁으로 사람농사의 씨 뿌리기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남들이 사람농사를 짓기 쉽도록 토양을 다지고 간 것이다.

기사 지면 2017년 4월21일

“사람 농사가 범죄 될 뻔해 ... 제2 잡스 다시 키워보리다”

7년여 법정 투쟁 끝낸 황필상 이사장
서울 창계천 인근 관자촌서 태어나
KAIST 교수, 수원교자로 대표

6년간 733명에게 장학금 줬는데
느닷없이 장학재단에 140억 증여세

재판 걸어지면서 장학사업도 중단
심한 스트레스에 백내장까지 생김

“너무 오래 걸렸어. 이번 일로 400살 도사가
될 것 같아.”

20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황필상(73) 수원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을 나와 웃은 곳은 법원 종로 출근구이었다. “법정을 패기하고...”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고문을 듣는 순간에도 입꼬리만 가볍게 올라갔다. 그의 표정에 담배 연기 속에서 살짝 비쳤다. 황 이사장은 “그나마 문제가 해결돼 대학 생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근구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힘들지 않으셨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말문이 트였다. “처음에는 속 무지하게 많이 썩었다. 내가 왜 기부할 해서 범죄자로 몰리나 후회도 많이 했다. 그 뒤로 제반했다. 이 앞에만 볼두하면 죽을까 봐...”
사건의 발단은 2002년의 선행이었다. 황

‘수원교자로 주시 기부’ 대법원 선고까지
1991년 황필상씨 생황정보지 ‘수원교자로’ 창간
2002년 황씨, 비영리법인 ‘수원장학재단’ 설립
2003년 수원교자로 주시 90%의(90%) 재단 기부
2008년 수원장학재단, 증여세 100억 가산금 40억 부과
2010년 수원지법, “증여세 부과 처분 부당” 판결
2011년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부과 처분 정당” 판결
2017년 대법원, 2심 파기하고 고원에 돌려보내

가 박사 학위를 땀.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로 지낸 뒤 91년 생황정보지 사장에 취임하면서 수원교자로를 설립했다. 황 이사장은 “만해도 돈도 없이 공부할 땀 흘린 속도 못 이르렀다. 그때 배운 노력이 배반했다. 황필상씨 학을 빼고 버리는 거다. 이번 사건도 그대 배운 노력이 배반했다. 이겨 내는 거다”고 말했다.
6년간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수원장학재단에 느닷없이 재무조사종지서가 날아온 것은 2008년 9월이었다. 재무조사 직감에 “우리 재단의 전신을 알면 (너무 깨끗해) 경악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었다. 재무조사 결과 증여세 140억원이 부과됐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급박 해결되었는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낸 심사청구가 거절됐고, 장학재단의 재산과 계좌가 압류됐다. 2010년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이제 다 해결됐다” 싶었지만 다음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7년4개월의 증여세 소송에서 이긴 황필상 이사장이 받은 표정으로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승환 기자

소수의견 낸 대법관 3인
“기부 뒤 재단 장악 우려”

▶면 ‘황필상’에서 계속
2010년의 1심은 황 이사장의 편에 섰지만 이듬해에 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부 의도를 중시했지만 2심은 “제외를 두기 시작하면 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날 “출연자가 주식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는 출연 후 남은 주식은 기 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지는 출연자가 재단의 장관 작성과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향권 법원 승계에 악용될 우려라는 이유로 신의의 사회공헌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반이 주식 출연을 규제 하는 이유는 출연 후 이들을 회사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선명했다.
하지만 김용박·김소원·박상욱 대법관은 “최대주주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주식 출연 후가 아니라 출연 직전으로 보는 게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황필상 이사장이 2017년 4월20일 대법원 법정에서 자리에 앉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줄 옆 자리에서 지켜본 취재 기자는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듣던 황 이사장이 결과를 듣고 잠깐 희미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관찰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퇴근길에 그의 빈소를 찾았다.

‘아, 정말 내가 찍은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 걸려있구나.’



최종 승소 판결을 들은 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 하는 황필상 이사장. 그는 “모두 변호인단 덕분”이라며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을 치켜세웠다.

담배 연기 속에서 웃고 있는 그에게 인사를 드렸다. 사모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양반 그래도 이겨서 후회는 없이 갔어. 정말로.” 고인께서 내가 쓴 기사를 읽고 또 읽고, 복사해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고맙고 미안했다.

“자서전은 다 쓰셨나요?” 내 물음에 유족들의 눈이 동그랗게 됐다. 고인의 사진을 찍은 날 그는 “두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가족들 모르게 자서전을 쓸 생각”이라고 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몰래 준비하는 아버지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두 따님은 울음과 웃음이 섞인 얼굴로 “어서 아버지 노트북을 열어 봐야겠다”고 했다.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고인의 따님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결식에서 아버지 유서로 모두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족의 허락을 받아 고인의 뜻을 몇 줄 함께 나눠본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여력이 있거든 인정을 베풀어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라! 내 이웃이여! 사랑합시다. 줍시다. 100년 인생도 순간이로아!”